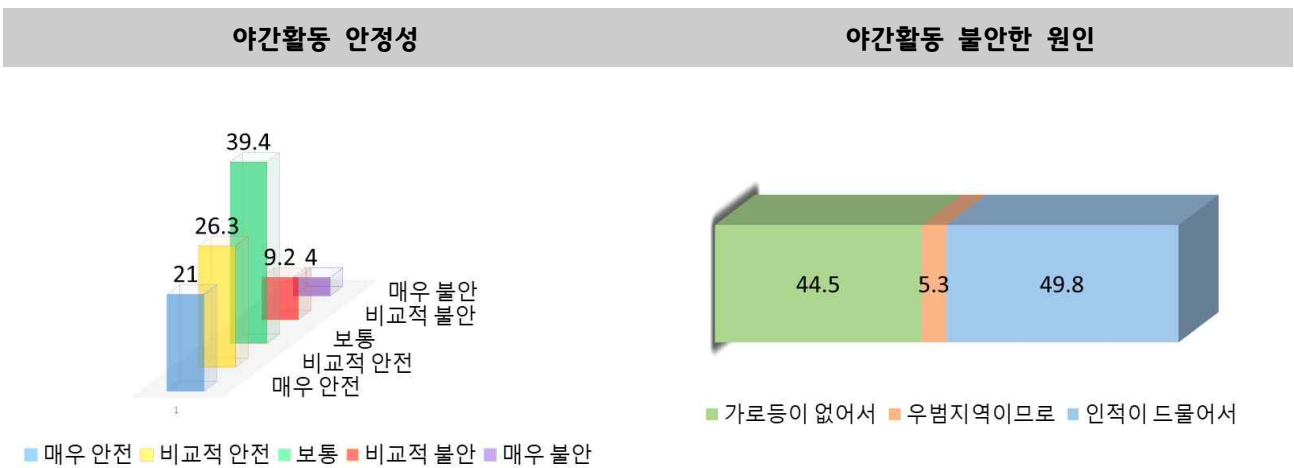


11. 안전

- ▶ 곡성군민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야간 활동 및 보행 시에 86.8%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13.2%만이 불안을 느끼며 그 원인은 「인적이 드물어서(49.85%)」가 가장 많으며 「가로등이 없어서(44.5%)」 순임



- ▶ 야간 활동 및 보행 시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대처방법(행동)은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52.4%)」가 가장 많으며, 60세 이상은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가, 15~29세와 40~49세는 「조금 멀더라도 돌아서 간다」가 높게 나타남
- ▶ 곡성군민의 63.8%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평소에 기초질서를 「지키는 편이다(63.8%)」라고 생각하며, 2.9%만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평소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편이다」라고 생각함.
- ▶ 평소에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주된 이유는 「귀찮아서(28.5%)」가 가장 많았으며 「단속이 잘 안되기 때문에(27.5%)」도 주된 이유임

11. 안전 부문

11 - 1 야간활동 안전성

11 - 2 야간활동 대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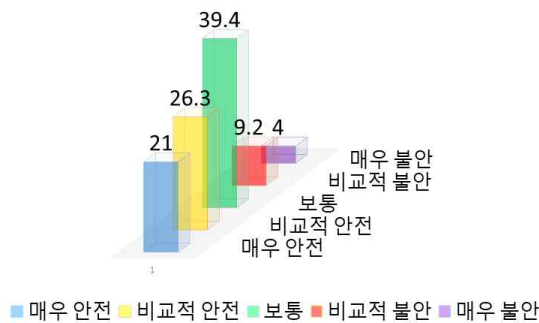
11 - 3 기초질서 준수 여부 및 미준수 이유

11 - 1. 야간활동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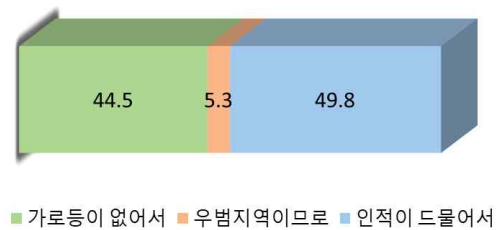
살고 있는 지역의 야간활동 및 야간보행시 「불안(비교적 불안+매우 불안)」함 (13.2%)

- 살고 있는 지역의 야간활동 및 야간보행시 안전성에 대해 「안전(47.3%)」, 「보통(39.4%)」, 「불안(13.2%)」순으로 나타남
- 보통을 포함하여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6.8%로 아주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옥곡권은 야간활동 안정성이 곡성권과 석곡권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야간활동 안전성"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으로 「인적이 드물어서(49.8%)」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가로등이 없어서(44.5%)」, 「우범지역이므로(5.3%)」순으로 나타남
 - 년도별에서 「인적이 드물어서」는 증가하고 「가로등이 없어서」는 감소함
 - 지역별 "야간활동 불안한 원인"으로 「인적이 드물어서」와 「가로등이 없어서」가 주된 이유로 나타남.

[야간활동 안정성]



[야간활동 불안한 원인]



<표 11-1> 야간활동 안전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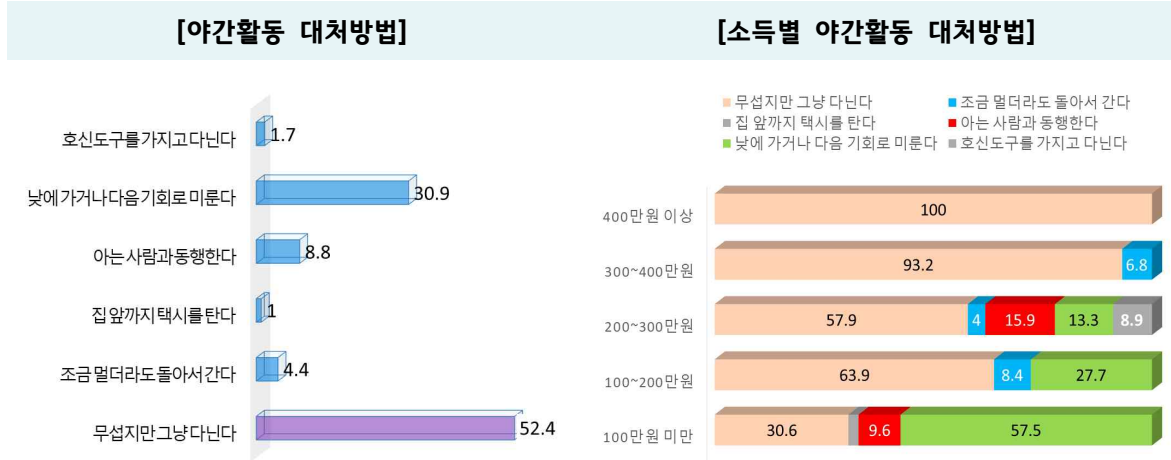
구 분	계	안전하다			보통	불안하다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2015년	100.0	48.8	19.2	29.5	37.9	13.3	9.4	3.9
2017년	100.0	47.4	21.0	26.3	39.4	13.2	9.2	4.0
<지역별>								
곡성권	100.0	53.8	28.5	25.3	33.3	12.9	10.2	2.7
석곡권	100.0	54.7	17.9	36.9	37.7	7.5	5.1	2.5
옥곡권	100.0	35.1	13.6	21.6	48.0	16.9	10.4	6.5
<성별>								
남자	100.0	47.6	20.9	26.7	40.2	12.2	8.2	4.1
여자	100.0	47.2	21.2	26.0	38.7	14.1	10.2	3.9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11 - 2. 야간활동 대처방법

야간활동 대처 1순위 방법은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가 52.4%

- 곡성군민의 “야간활동 대처 방법”은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가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과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야간활동 대처 방법”으로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와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가 주된 이유로 나타남
 - 년도별에서는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는 감소하고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는 증가함
 - 모든 연령대에서 “야간활동 대처 방법”으로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가 주된 이유로 나타나며, 60세 이상과 65세 이상은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가 15~20세와 40~49세는 「조금 멀더라도 돌아서 간다」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 보다 높게 나타남
 - 40~49세는 「집 앞까지 택시를 탄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3> 야간활동 대처방법

(단위: %)

구분	계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조금 멀더라도 돌아서 간다	집 앞까지 택시를 탄다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기타
2015년	100.0	55.0	6.3	1.2	7.1	22.2	3.4	4.7
2017년	100.0	52.4	4.4	1.0	8.8	30.9	1.7	0.8
<지역별>								
곡성권	100.0	56.0	6.0	0.9	9.6	21.6	3.9	2.0
석곡권	100.0	50.6	1.9	-	7.9	39.6	-	-
옥과권	100.0	49.4	3.6	1.3	8.3	37.5	-	-
<가구소득별>								
100만원 미만	100.0	30.6	-	2.3	9.6	57.5	-	-
100~200만원	100.0	63.9	8.4	-	-	27.7	-	-
200~300만원	100.0	57.9	4.0	-	15.9	13.3	8.9	-
300~400만원	100.0	93.2	6.8	-	-	-	-	-
400만원 이상	100.0	100.0	-	-	-	-	-	-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11 - 3. 기초질서 준수 여부 및 미준수 이유

"기초질서 준수 여부"로「지키는 편이다」가 63.8%,
미준수 이유는「귀찮아서(28.5%)」

-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기초질서 준수 여부"로 「지키는 편이다(매우 잘 지키는 편이다+비교적 잘 지키는 편이다)」가 63.8%로 나타나며, 「보통이다」가 33.3%로 나타남
- 곡성군민의 「지키지 않는 편이다」에 응답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질서 미준수 이유"로 「귀찮아서」가 28.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단속이 잘 안되기 때문에」도 27.5%로 높게 나타남
 - 년도별 비교에서 「귀찮아서」는 소폭 감소, 「단속이 잘 안되기 때문에」는 큰 폭으로 증가함
 - 지역별로 "기초 질서 미준수 이유"로 「곡성권」은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아서」가 34.6%로 가장 높고, 「석곡권」은 「귀찮아서」가 45.1%로 가장 높으며, 「옥과권」은 「준법교육을 잘 받지 않아서」가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1-5> 기초질서 미준수 이유

(단위: %)

구 분	계	법은 지키면 손해볼 것 같아서	처벌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아서	귀찮아서	단속이 잘 안되기 때문에	준법교육을 잘 받지 않아서	기타
2015년	100.0	15.5	5.2	16.5	48.3	8.0	6.5	-
2017년	100.0	5.0	5.7	17.3	28.5	27.5	13.7	2.4
<지역별>								
곡성권	100.0	24.7	20.4	34.6		8.6	-	11.7
석곡권	100.0	-	3.1	17.6	45.1	31.1	3.1	-
옥과권	100.0	-	-	5.3	21.1	34.1	39.4	-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